

제2차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외국의 사회적경제 추진동향

2012. 04. 16(월)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차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콜로키움(Colloquium)이란 "모여서 말하기, 대화하기" 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일반적 의미로 공공의 장소에서 어떤 주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공동 토의하는 방식을 의미

1. 개요

- 일 시 : 2012년 4월 16일(월) 15:00-18:00
-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1층)
- 대 상 :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연구원, 교수, 실천가, 공무원 등

2. 목적

-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형성을 위한 이론 및 실천방안
-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및 구성원의 역량강화
- 충남도 사회적경제 사업의 발굴 및 정책지원 방안 등

3. 발표 및 토론

- 주제발표 : 외국의 사회적경제 추진동향

발표자 : 김성오 연구위원 ((재) 아이쿱 협동조합연구소)

장종익 교수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 대학)

- 몬드라곤 및 볼로냐등의 사회적경제 사례 소개
- 유럽 등의 외국의 사회적경제의 추진동향 파악
- 충남의 사회적경제의 발전방안 모색
- 기타
 - 콜로키움 운영방법
 - 제3차 콜로키움 주제 및 발표자 선정

○ 토론

- 오 귀 복 교육위원장 (아이쿱생협 활동연합회)
- 오 은 주 수석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참석자 전원

4. 행사일정

▶사회 : 김종수(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15:00~15: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 원장님 인사말
15:05~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로키움 소개
15:1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제 - 몬드라곤 협동조합 사례연구 : 김성오 연구위원((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6:00~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 식
16:1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제 -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분석 : 장종익 교수(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 대학)
17: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론 및 정리 - 좌장: 송두범 센터장(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지정토론: 오 귀 복 교육위원장 (아이쿱생협 활동연합회) - 지정토론: 오 은 주 수석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참석자 전원

목 차

발 제

몬드라곤 협동조합 사례연구

김성오 연구위원 ((재)아이쿱 협동조합연구소) 1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특징

장종익 교수 (한신대학교 글로벌 협력대학) 20

토 론

토 론 1

오귀복 교육위원장 (아이쿱생협 활동연합회) 42

토 론 2

오은주 수석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6

☞ 토론회 후기문 48




제2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발 제 1

몬드라곤 협동조합 사례연구

김 성 오 연구위원
(재) 아이쿱 협동조합연구소



몬드라곤 협동조합 사례연구

김성오 ((재)아이쿱 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 목 차 >

1. 몬드라곤 협동조합 소개 및 개괄
2.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발전 역사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가능성
3. 협동조합 역사에서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위상
4. 양극화, 실업 문제, 그리고 몬드라곤협동조합의 함의

1. 몬드라곤 협동조합 소개 및 개괄

1) 개괄

몬드라곤은 스페인 바스크 지역 몬드라곤시에서 1940년대부터 성당 주임신부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 아리에타 주도로 시작된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운동이다. 1956년 가스 스토브와 가스 취사도구를 만들었던 첫번째 협동조합 [울고]가 설립된 이후 1960년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를 거치면서 거대한 협동조합으로 성장하였다.

2010년 현재 약 260개 회사가 금융, 제조업, 유통, 지식 등 4개 부문을 포괄하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조직되어 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일종의 재벌기업인데, 단지 그 주인이 특정 가문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동자들이 소유하고 경영자를 선임하며 경영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기업의 전체 자산은 우리 돈으로 약 54조원, 제조업과 유통업 부문의 2010년 1년 매출은 대략 22조원 정도 되는 규모이다. 약 8만 4천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중 약 3만 5천여 명이 출자금을 낸 노동자 조합원, 즉 주주들이고 나머지는 조합원으로 점차 전환되어 가고 있는 비조합원 노동자들이다. 해외에 80여개가 넘는 생산공장을 갖추고 있고 제조업 매출의 약 60%는 수출을 통한 해외 매출이다. 제조업중 핵심 사업은 가전제품 생산 판매인데 브랜드는 ‘파고르’로 스페인과 유럽, 미국과 남아메리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파고르 냉장고나 파고르 세탁기를 사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삼성, 엘지 등 워낙 세계적인 가전브랜드가 있어 한국시장에는 아직 진출하지 못했다.

몬드라곤에 소속된 유통부문 핵심기업 [에로스키]는 소비자 협동조합이지만 스페인과 프랑스에 약 2,1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홈플러스나 이마트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금융부문 핵심기업인 [노동인민금고]는 스페인 전국에 420여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 5위권 안에 드는 대형 은행이다. 또한 몬드라곤에는 기업이 운영하는 공학부, 경영학부, 인문학부를 포괄하는 몬드라곤 대학교가 있고 스페인 바스크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연구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2) 조직구조

1991년 이전 몬드라곤의 노동자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단위협동조합 총회에서 이사회 멤버와 조합평의회 멤버를 뽑으면 되었다. 이사회는 협동조합의

최고 경영기관이고 조합평의회는 일종의 노동조합역할을 하는 노동자 조합원의 권익기관이다. 두 기관의 멤버 1/3은 중복되어 이중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중복 멤버들은 아침에는 이사회 멤버로 회사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저녁에는 조합평의회 회의에서 조합원들의 복지증대와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고민한다. 이러한 이중적 역할은 자신이 주인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졌다. 몬드라곤 설립초기부터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의 지도하에 이러한 기본 구조가 만들어졌다. 다른 지배기구는 불필요했다. 단지 이러한 개별협동조합을 묶는 연결의 끈은 노동인민금고와의 '연합협정'으로만 이루어졌다.

1991년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 (Mondragón Cooperación Cooperativa, 약칭 MCC) 체제가 성립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MCC체제는 당시 약 120여개(현재는 260여개)의 단위기업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작업의 결과로 성립되었다. 단위기업들은 금융그룹, 제조업그룹, 유통그룹, 연구 교육그룹으로 편제되었다. 제조업 그룹은 자동차, 부품, 건설, 산업장비, 가전, 엔지니어링 및 자본재, 기계공구등 7개의 소그룹으로 조직되었다.

상설적인 최고경영조직은 총이사회(General Council)이다. 총이사회는 이사장 1인과 9명의 부이사장이 있었다. 이사장 1인은 실제로 MCC 전체의 경영책임자였고 9명의 부이사장은 금융그룹, 유통그룹, 그리고 7개의 제조업 소그룹의 최고경영자들이었다.

2006년 MCC는 창립 50주년 총회에서 자신의 통합명칭을 몬드라곤(MONDRAGON)으로 바꾸고 4개의 그룹을 4개의 부문으로 편제하고 각 부문은 각각 몇 개의 소 부문으로, 특히 제조업 부문은 12개의 소 부문으로 조직되었다.

몬드라곤(MONDRAGON)체제에서도 상설적인 최고 경영조직은 총이사회(General Council)였다. 하지만 2006년 이전과 달리 부이사장직은 폐지되고 제조업 부문에는 별도의 부문이사회가 조직되었다.

네개 부문을 총괄하는 것은 몬드라곤 의회(MONDRAGON Congress)이고 의회의 상설기구로 총이사회(General Council)와 함께 상임위원회(Standing Comitee)를 주요기구로 두었다.

3) 고용구조

1991년 이후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몬드라곤의 고용의 질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마디로 말해 총고용의 40%정도만이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걱정하는 것이다.

몬드라곤의 8만 4천명 전체 노동자들은 고용형태에 따라 4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협동조합의 소유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진 '노동자 조합원' 이 있다.

둘째, 이런 권리를 갖지 못하는 장단기(주로 단기) ‘비조합원 노동자’이다. 세 번째로는 스페인과 바스크 지방법규에 따라 최근에 생겨난 ‘기간제 노동자 조합원’이다. 네 번째는 바스크 이외 스페인이나 해외 지사들의 노동자이다. 1991년부터 글로벌화를 통해 몬드라곤은 신흥 개발국에서 광범위한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앞서서도 보았듯이 이러한 지역에는 협동조합법이 스페인과 달라 주로 주식회사 형태가 많다. 바로 여기에 근무하는 노동자이다.

노동자 조합원. 몬드라곤에 소속된 단위협동조합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몬드라곤 전체의 주인들이다.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고 한다면 몬드라곤의 주인은 노동자이면서 소유자들인 바로 이들 노동자 조합원이다. 이들은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자신의 회사에서 소유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몬드라곤에 소속된 비협동조합기업들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간접적으로 향유한다. 고용은 매우 안정적이며 해외로 공장시설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고용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 대개 제조업 부문 노동자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부문과 유통부문의 경우 전체 고용의 약 20%를 차지한다.

기간제 비조합원 노동자. 몬드라곤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유연한 형태의 노동으로서 협동조합 안에 비조합원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단위 협동조합과 고용계약을 맺는데, 단위협동조합 내에서 전체 노동자 조합원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몬드라곤의 제조업 부문 협동조합들에서 이 비중은 평균 15%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은 이익 참가를 보장 받는다 해도 총회에서 투표권은 없다. 몬드라곤의 협동조합들은 생산이 끝나는 기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들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의존성을 높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 조합원과 비슷한 사회보장혜택을 받는데, 해고됐을 경우 다른 노동자들처럼 실업수당을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3년 내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

기간제 조합원. 바스크 협동조합법에 따라 몬드라곤 협동조합들은 일정기간 계약에 따라 협동조합 조합원들을 고용한다. 그들의 권리와 의무는 나머지 조합원들과 같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고정기간 계약 조합원들(제한된 기간 동안 노동자 조합원이 된다)이 직장을 잃을 경우, 국가의 사회보장 체계에서는 이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몬드라곤은 몬드라곤의 노동자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사회보장 협동조합인 라군아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들이 실업 상태가 됐을 때 라군아로는 실업수당을 지불한다. 그래서 기간제 조합원 자격은 경제 순환의 변동성에 대처하는 또 다른 해결책이 된다. 이

들 기간제 조합원들은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완전한 권리를 갖는 정식 조합원이 될 수도 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실업수당을 받고 쉬며, 확장 기간에는 재계약을 함으로써 전통적인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동일하게 누린다.

해외 지사의 노동자. 해외지사들의 경우 노동조건과 노동관계는 몬드라곤과 많이 다르다. 이들 조건은 사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나라의 노동조건과 유사하다. 두 개의 참고사항이 있다. 하나는 각국의 법규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나라의 동일 부분에 속하는 회사들, 특히 다국적 기업의 행태가 그것이다. 해외 공장의 노동자 참여 수준은(경영참여, 수익 및 소유권 참여)매우 미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해외지사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나 소유참여가 그 지역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사들에서 노동자들은 이사회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이루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경영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기업을 봐라.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 모기업 자회사로 부끄럽지 않으려면...”

4) 최근 20여년간의 경영지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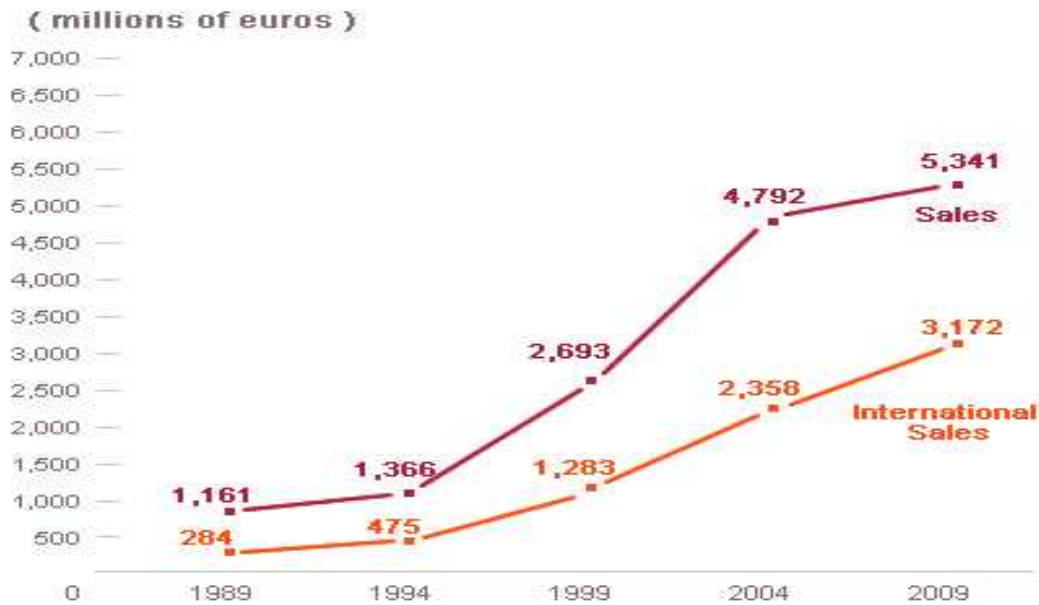
(최근 20년간 경영지표 요약)

(백만유로, 명)

	총자산	순자산(자본)	연결수입	총매출	총투자	고용
1989	1,661			1,534		22,030
1994	2,746			2,981		25,990
1996	4,402	2,000	216	3,786	271	31,963
1997	5,024	2,369	314	4,368	378	34,397
1998	5,708	1,732	414	5,348	425	42,129
1999	6,364	2,009	460	6,274	522	46,861
2000	7,040	2,295	405	7,065	738	53,377
2001	7,891	2,688	335	8,106	872	60,200
2002	8,474	3,102	370	9,232	683	66,558
2003	9,247	3,281	410	9,655	847	68,260
2004	18,593	3,757	502	10,459	730	70,844
2005	22,977	4,226	545	11,859	866	78,455
2006	27,550	4,696	677	13,390	1,243	83,601
2007	32,840	5,078	792	15,056	2,809	103,731
2008	33,499	4,261	71	15,584	1,324	92,773
2009	33,334	4,284	61	13,819	378	85,066
2010	33,099	4,287	178	13,989	101	83,859

(*) 1989~2004년 총자산은 노동금고의 것

(최근 20년간 제조업 부문 매출추이와 해외매출비율)



2.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발전 역사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가능성

1) 작은 도시에서 지역주민들의 힘을 모으다 !

1956년 첫 번째 협동조합 [울고]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기술자 5명, 노동자 약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몬드라곤시의 시민들이었다. 그리고 그 후 50여년 넘게 고속 성장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회사가 만들어지기 위해 창립자이자 이들의 정신적 지도자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 아리에타 신부가 1941년부터 벌였던 주민운동의 역사를 빼고 몬드라곤의 오늘날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신부는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코군의 바스크 압살전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몬드라곤 교구에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부임했다. 전임사제는 프랑코군에게 처형되었다. 우선 기술학교를 만들었다. 의식있는 젊은이들이 프랑코군에게 거의 목숨을 잃은 상태에서 어린 아이들부터 가르쳐야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 같다. 학교를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했다. 신부는 패배의식과 공포에 절어있던 주민들에게 웃음을 찾아주고 다시 희망을 복돋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학교와 함께 축구클럽들과 축구리그를 만들고 요즘으로 보면 ‘스포츠 토토’ 같은 복권도 만들었다. 그 수익금은 고스란히 마을 기금으로 적립되었다. 성당조직은 다양하게 확대되고 활성화되었다. 15년 정도 이러한 주민운동이 진행된 결과 첫 번째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들과 달리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고도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과 거의 동시에 신용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신부는 몬드라곤시 주민들을 설득해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물론 주민들은 신부를 믿고 조합에 참여하였는데, 오늘날 이 신용협동조합은 ‘노동인민금융’ 라는 거대 은행으로 발전했다. 주민들은 은행을 만들어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그 결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몬드라곤협동조합의 유통기업은 ‘에로스키’ 라는 이름의 거대한 소비자협동조합이다. 물론 몬드라곤 주민들이 가장 먼저 참여했다. 현재 에로스키는 스페인과 프랑스에 약 2,100개의 크고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페인 최대의 유통기업이 되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에 소속된 몬드라곤 대학교와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들 또한 몬드라곤 주민이 가장 먼저 참여하고 현재는 바스크 주민 전반이 혜택을 받고 있는 일종의 학교협동조합이다. 몬드라곤 대학교의 졸업생들은 몬드라곤협동조합에 소속된 각종 회사에 우선 적으로 채용된다.

몬드라곤시는 현재도 인구 3만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주민의 80% 이상이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직,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스페인에서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다. 이들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은 지역 내에서 서로 협동하고 긴밀히 소통한 결과인데, 조그마한 한 지역의 주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바스크 주정부와 협력하다 !

스페인의 주민자치는 정치적으로 1970년대 초반 30년 넘게 철권통치를 이어가던 프랑코가 죽고 독재체제가 무너진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때부터 바스크 주정부는 주민들의 총의에 의해 바스크 주를 운영하게 되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바스크 주안에서는 이미 최대기업으로 발돋움한 상태였는데, 바스크주정부의 주요 세수를 조달하고 있었다.

바스크 주정부는 바스크민족주의 온건 좌파가 가장 오랜 기간 집권하고 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8만 5천명 노동자들은 대개 이러한 성향과 일치한다고 보면 되지만 조합원중 일부는 극단적인 바스크 분리주의자들(ETA)을 지지하기도 한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안에서 조합원들의 정치활동은 자유롭게 보장된다. 매년 전체 조합원 총회나 ‘몬드라곤 의회’ (몬드라곤 협동조합 전체의 최고의결기구)에서 다양한 정파 소속의 노동자 조합원들은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사업방향과 전략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사업방향이 결정되면 여기에 복무해야 한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주정부와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주정부는 바스크주 전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1970년대 노동인민금고가 몬드라곤 협동조합 이외의 다른 기업들과도 거래할 것을 요구했고 몬드라곤은 이 요구를 수용했다. 그리고 노동인민금고는 바스크 주정부의 주요거래은행이기도 하다. 또한 몬드라곤의 기술연구소들은 전체 연구 프로젝트 중 절반이상을 주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연구결과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위해, 더 나아가 바스크지역의 다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잉여금(협동조합회계에서는 ‘이익’이나 ‘이윤’ 대신 ‘잉여’, 즉 다 쓰고 남은 돈이라고 한다)중 10%는 지역사회를 위해 투자한다. 각종 개발계획이나 장학금, 그리고 지역내 극빈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된다.

몬드라곤협동조합은 작은 도시에서 시작하였으나 현재 바스크주의 전체 주민들과 협력하고 연대한다. 이들은 특별히 자신들의 지역적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수평적 연대를 원칙으로 삼아 바스크지역의 주민들 전체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언제든 바스크 주의 어떤 협동조합이 몬드라곤과 한식구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협동조합의 원칙과 몬드라곤 그룹의 원칙, 그리고 수평적 연대의 원칙을 견지하고 같은 업종에서 부딪치지만 않으면 된다. 앞으로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아마도 더 많은 바스크 지역 기업들과 연대를 해 나가면서 이들과 소통하게 될 것이다.

3) 세계인들과 연대하고 고민하다 !

몬드라곤의 해외 생산기지들은 현재 약 80여개 정도 된다. 이들 기지들은 대개 1990년대 이후 유럽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세계경제 전체가 급속한 세계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확대되었다. 현재 이들 기업을 통해 몬드라곤이 창출한 ‘괜찮은’ 해외 일자리 수는 약 1만 5천개에 달한다. 연한에 비해 결코 작은 숫자로 볼 수는 없다.

현재 몬드라곤의 글로벌화에 대해서는 진보진영과 협동조합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과연 이들의 세계화 전략은 다른 초국적 기업들의 세계화 전략과 무엇이 다른가?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조합원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값싼 해외 노동력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외 기지 노동자들은 몬드라곤 협동조합 본국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소유와 경영참여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가?

해외 생산기지들이 존재하는 나라들에 협동조합관련법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대부분 다른 기업들과 별 차이 없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몬드라곤 본사가 100%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의 사기업들과 합작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영참여에 대한 보장 또한 없다. 최근 들어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경영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몬드라곤 의회의 보고서에서는 해외 자회사의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경영과 소유참여의 길을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묻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들은 이것을 “권고사항” 정도로 적시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스페인 바스크의 작은 도시에서 출발하였지만 현재 바스크와 스페인을 넘어 전세계인과 소통하고 있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해외 생산기지 노동자들을 노동자조합원으로 전환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 그 지역의 주민들과 훨씬 강도 높은 연대를 이루는 길을 찾게 될 것을 확신한다. 아마도 5년 정도 지나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판단한다.

3. 협동조합 역사에서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위상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발제자는 일단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해 보았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이중 3단계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

1단계는 협동조합운동의 씨앗이 잉태되고 싹을 틔우는 시기로 로버트 오웬으로 대표되는 실험적 정신들이 주도하는 시기이다. 2단계는 로치데일 소비자협동조합을 필두로 라이파이젠에 의해 주도된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프로이센지역과 덴마크의 농업협동조합, 남부유럽에서의 노동자 협동조합, 주택,보건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협동조합등 현재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이 협동조합들이 전세계를 뒤덮은 시기이다. 3단계는 2단계 협동조합운동 와중에 협동조합운동이 ‘소속 조합원만의 이익추구’라는 관점을 벗어나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된 관점에서 해석하여 협동조합이 ‘고용’과 ‘환경’이라는 범지구적 문제들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협동조합운동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시기이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현재는 제2단계의 말미에서 3단계로 나아가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 몬드라곤은 일본과 한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운동과 함께 3단계 협동조합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분류된다. 몬드라곤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노력에 대한 사례로, 생활협동조합운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대응사례로 언급된다.

1) 1단계 협동조합운동

협동조합운동은 노동조합조합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산업혁명기의 비인간적인 노동조건과 짐승과 다름없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태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700년대와 1,800년대 초반 영국에서 본격화된 산업혁명 시기에 양떼들에게 경작지를 빼앗기고 농촌에서 쫓겨난 도시노동자들의 상태는

참혹했다. 그들은 공장이나 광산근처의 노동자 합숙소에서 생활했는데 하루에 16시간 이상의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다. 특히나 사람들을 분노케 했던 것은 ‘유아노동’이었다. 만 7살 되는 아이들부터 14세 이전 아동들의 노동은 공공연한 일 이었고 광산주나 공장주들은 값싸고 통제비용이 적게 드는 유아노동을 선호했다. 특히 광산주들의 입장에서는 석탄이나 철광을 캐내기 위해 아이들이 들어갈 만한 좁은 갱도를 선호했는데 이는 어른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큰 갱도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교과에서 늘상 ‘공상적 사회주의자’ 라고 배운 적이 있는 로버트 오웬은 1700년대 후반에서 1800년대 중반까지의 사람으로 학교를 거의 다닌적이 없었는데 젊은 시절부터 옷감장사를 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다. 옷감장사는 요즘으로 치면 ‘반도체 딜러’ 쯤에 해당되는 첨단업종 종사자였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는 당시 교양있는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문제, 특히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환경, 노동조건에 대해 휴머니즘에 기반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공장주들이 이렇듯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으로 노동자들을 내몰지 않고는 공장 경영을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시작한 ‘뉴라나크 방적공장’은 사실 오늘날과 같은 전형적인 협동조합은 아니었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이고 놀라운 실험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방적공장 딸과 결혼하여 장인의 공장을 헐값에 넘겨받아 실험장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이 공장의 이름이 바로 뉴라나크 방적공장이었다. 뉴라나크에서 그는 14세 이하의 노동자들은 일을 시키지 않고 공장안에 만들어 놓은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했다. 그리고 14세에서 18세 까지는 하루에 절반 일을 하고 절반은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성인 노동자들은 하루 열두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생필품을 헐값에 구입할 수 있는 구판장을 회사안에 만들었다. 오늘날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보면 아마도 감옥에 가야 되는 악덕 기업주였지만 당시 영국에서 뉴라나크는 꿈의 공장이었다.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지식인들중 이 공장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지금의 몬드라곤보다 당시의 뉴라나크가 훨씬 유명한 곳이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들 방문자들은 이 공장을 전학한 뒤 한결같이 “아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

뉴라나크는 전형적인 협동조합은 아니었지만 협동조합연구자들은 이곳에서 협동조합의 씨앗이 잉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회사” 였으며 협동조합은 이러한 휴머니즘을 자신의 뿌리로 생각하고 있다. 잉여가치 생산의 담지자 노동계급을 단결시켜 정권을 장악하고 이것을 지렛대로 모든 공장을 노동자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한심하고 제한적이며 공상적이기조차 한 실험이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전에 노동자들은 계속 싸우는 것 밖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혹은 노동자계급이 정권을 잡은 후에도 모든 공

장에서 노동자들은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회주의 국영기업을 70여년 경험해본 지금 시점에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답변은 ‘아니오’이다.

1단계 협동조합운동은 이처럼 휴머니즘에 기반한 실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뉴라나크의 성공사례는 유럽 전역으로 번져 나갔고 전투적인 노동조합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공장접수운동과도 결합했다. 노동자들은 정권을 장악하기 이전이라도 여기저기서 ‘인간적인 회사’ 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들은 자본주의시장경제 속에서 일종의 고립된 섬에 불과했고 오래 지속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들의 정신만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

2) 2단계 협동조합운동

로치데일 소비자협동조합은 전형적인 협동조합운동의 시발점이었다. 1800년대 중반이 되면 노동자들은 노동자 합숙소에서 벗어나 가정을 꾸리고 노동자 밀집지구에 모여 살게 되었다. 노동자 가족들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생활상의 문제는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었다. 지금이야 생필품 시장에서 소비자는 ‘왕’을 넘어 ‘황제’이고 공급기업들의 마케팅 구호가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혼절’로 접어들었지만 당시의 생필품 시장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다. 구매력이 약한 노동자 가족들에게 매일 필요한 양초와 소금, 쌀과 설탕은 가격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이상한 물건들이었다. 심지어 물건이 없는 날도 허다했다. 따라서 수입이 한정된 노동자 가족들에게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생활문제였다.

로치데일의 노동자 가정들은 이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30여가구를 모아 돈을 각출하고 그 돈으로 가게를 차렸다. 가게에서는 출자금을 낸 조합원들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노동자 한 가구의 구매력과 비교해 30여가구의 구매력은 공급기업과의 협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도록 하였다. 그들이 만든 가게에서 생필품들은 다른 가게들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급되었다.

로치데일 이전에도 이러한 생필품 구판장은 매우 많은 지역에서 성행했는데 대부분 성공적이지 못했다. 특히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가게가 연말에 장사를 다하고 난 뒤 남은 잉여금의 분배문제였다. 잉여금의 분배를 둘러싸고 예외없이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다. 로치데일 소비자협동조합은 지구상에서 최초로 이 문제를 “이용고 배당의 원칙”으로 해결했다. 즉 가게에서 물건을 많이 구입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더 많이 분배한다는 원칙이었다. 이 간단한 원칙은 지금 모든 협동조합에서 당연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 원칙을 만들어낸 1870년대 로치데일 소비자협동조합운동가들에게는 엄청난 명성을 안겨 주었다. 산업혁명기 유럽 지역 어디에서나 노동자 밀집지역의 노동자 가족들에게 생필품 안정 공급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한 로치데일 소비자 협동조합 사례는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0년단위로 수천개의 소비자 협동조합이 유럽전역에 만들어지고 2단계 협동조합운동은 전 유럽으로 번져나갔다.

신용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된 곳은 19세기 후반 프로이센의 농촌지역이었다. 프로이센지역은 유럽의 다른 지역보다 농지개혁이 빨리 이루어져 소작농보다 자영농의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다. 라이파이젠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농촌 활동가였는데, 자신이 일하던 농촌의 농민들이 매우 열심히 농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늘 가난하게 사는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몇 년을 연구한 끝에 그것이 고율의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 구조에 기인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농민들은 봄에 비싼 이자를 물기로 하고 돈을 빌려 가을 수확기까지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거의 원금과 이자로 다 갚아야 했다.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었다.

라이파이젠은 농민들을 설득하여 신용조합을 만들었다.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대농들에게는 많이, 중농과 빈농들에게는 조금씩 돈을 각출하여 가난한 농민들부터 순위를 정해 놓고 고리대금업자들이 받는 이자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봄에 돈을 빌려주었다. 그 다음해에는 또 다른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으며 농민들은 고리대금업자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출로를 찾게 되었다. 그것도 자신들의 힘으로.....물론 로치데일 소비자 협동조합운동과 마찬가지로 라이파이젠스타일의 신용협동조합운동은 유럽농촌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독일의 도시지역 소상공인들이 모여 비슷한 원칙에 입각해 신용조합을 만들었는데 이 또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확대되었다. 이러한 도시지역 신용협동조합은 이 운동을 주도한 국회의원 술체를 기려 술체계 신용협동조합이라 불린다. 우리나라의 신협은 라이파이젠계열이다.

프로이센과 덴마크 농민들 속에서는 수확후 농산물을 중간업자에게 싼 값으로 넘기지 않고 그들이 돈을 모아 스스로 구판장을 만들어 물건을 팔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 경우 중간업자에게 넘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보장되었다. 농업 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배를 가진 선주들은 자기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직접 팔기 위해 구판장을 만들었다. 수산업 협동조합이 시작되었다. 산을 가진 산주인들도 뭇쳤다. 임업협동조합이 시작된 것이다.

프랑스 남부 지역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에서는 생디칼리즘 전통에 기반한 노동자들의 공장접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노동자생산 협동조합으로 확대되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주택, 보건협동조합과 같은 서비스 협동조합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여 유럽전역으로 확대되었다.

2단계 협동조합운동은 유럽을 넘어 점차 전지구로 퍼져 나갔다. 현재 전세계 인구 65억명중 경제 활동인구는 약 45억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절반 가까운 20억명 정도가 어떤 식으로든 각종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는 협동조합운동이 갖는 보편성에 기인한다.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필요가 공동

화될 수 있는 그 모든 지점에서 협동조합이 조직될 수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경제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데 이때 협동조합은 좋은 ‘그릇’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3) 3단계 협동조합운동

1895년 전세계 협동조합운동가들이 모여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을 조직하였다. 몬드라곤은 물론 이 연맹에 가입되어 있다. 3년마다 열리는 총회는 협동조합운동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협동조합정신을 되새기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세계 협동조합운동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주제발표가 1980년 제27차 총회에서 있었다. 협동조합운동가들에게는 [레이드로 보고서]라고 알려진 것으로 캐나다 협동조합중앙회 총장 출신의 저명한 협동조합연구자 레이드로 박사는 연맹의 청탁으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세계 협동조합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보고서에서 그는 지난 100여년간의 협동조합운동에 대해 평가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절대적 빈곤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던 측면,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한 측면을 지적하면서도 그것이 이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썼다. 협동조합이 거대화되고 일반화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가치 내지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조합원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는 점에 대해 통렬하게 지적했다. 도대체 협동조합이 일반기업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나아가 협동조합운동이 조합원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현대사회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네가지 과제, 첫째 식량문제의 해결과 기아의 극복, 둘째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문제의 해결, 셋째 환경보전에 의한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노력, 넷째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 대한 기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협동조합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3단계 협동조합운동이 출발하는 지점, 내지 3단계협동조합의 문제의식은 바로 레이드로 박사가 지적했던 현 단계 인간의 보편적 과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몬드라곤은 이 중에서도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동조합운동의 새롭고 활기찬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1980년 레이드로 박사의 문제제기 이후 약 15년 동안 협동조합운동가들은 토론과 논쟁을 이어갔다. 1995년 이 토론의 결과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국제협동조합연맹 100주년 총회에서 [21세기 협동조합의 원칙]이라는 문건으로 정리되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여기에는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의 가치’, ‘협동조합의 7대원칙’ 등이 실려 있다.

4. 양극화, 실업 문제, 그리고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함의

1) 몬드라곤은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가 ?

몬드라곤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감과 자극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몬드라곤은 전설속에 나오는 용에 대한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다. 실제로 몬드라곤은 MON(산이라는 뜻)과 DRAGON (용이라는 뜻)의 합성어이다. 우리 말로는 ‘용산(龍山)’ 내지 ‘산에 사는 용’ 쯤 된다.

몬드라곤의 노동자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 노동자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함으로써 경제민주주의의 지평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 아니면 이들이 기업활동의 목표를 수익확대가 아닌 고용확대에 둔다는 점? 무엇일까 ?

20년전에 발제자는 주로 몬드라곤이 기존의 사회주의 국영기업들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조직에 기반한 민주적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싶었고 자본주의 사기업에 비해서는 종류가 다른,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우월한 기업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몬드라곤이 협동조합 공화국 내지 협동조합이 전사회적으로 지배적인 기업제도로 정립되는 ‘협동조합 사회’ - ‘사회주의 사회’와는 또 다른 - 가 가능하다는 걸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이야기 하곤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여년이 흘렀고 우리 사회는 1990년대 초반과 많은 점에서 바뀌었다. 특히 진보진영의 고민이 어떤 사회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 보다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상적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더 또렷한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극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이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지배구조의 의미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길고도 긴 기업지배구조 진화의 역사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성찰할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몬드라곤은 사회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전략 프레임을 고민할 때 신선한 영감을 주는 사례이다. 왜냐하면 양극화는 그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 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활동의 목표를 수익확대가 아닌 고용확대로 하는 몬드라곤의 사례는 계속 곱씹어야 할 가치가 있다. 기업차원을 넘어 전 사회적으로도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과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 이외에는 없다.

2) 몬드라곤과 현대자동차

몬드라곤과 현대자동차는 자산규모와 매출규모, 그리고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 그리고 노동자들의 집단적 응집력 등에서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몬드라곤과 현대자동차가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소유구조이다. 몬드라곤은 6조 8천억에 달하는 자본금을 약 35,000명의 노동자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약 1억 9천만원 정도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는 노동자들의 퇴직시 노동자들에게 지급된다. 현재 몬드라곤의 유통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조합원의 조합원 전환과 유통부문 주식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프로젝트가 마감되면 아마도 노동자 조합원 숫자는 60,000여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고 자본금도 좀 더 늘어날 것이다. 2010년 노동자 조합원들은 2007년에 비해 자본금 배당을 많이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잉여금 액수가 큰 폭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잉여금중 사회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회사로 적립된다.

현대자동차는 27조에 달하는 자본금을 외국인 약 40%, 특수관계인 약 25%, 기타 소액주주 약 35%로 나누어 갖고 있다. 이중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나머지 소유자들은 매일매일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바뀔 것이다. 필자도 현대자동차 주식을 조금 샀다가 판 적이 있다. 경영권의 원천은 바로 특수관계인 지분이다. 대주주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 특수관계인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전체 자본금의 약 20%, 정몽구 전 회장이 약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모비스의 대주주가 정몽구 회장임으로 결국 정몽구 회장 개인이 특수관계인 지분 25%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나머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노동자들의 지분 또한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10년 기준으로 정몽구 회장은 약 160억원, 현대모비스는 약 680억원 가량을 주식배당금으로 받았는데, 현대모비스가 정몽구 회장에게 얼마를 주었는지까지는 알아보지 않았다. 이를 포함하여 2010년 1년간 현대자동차는 4,200억원을 주식배당금으로 내보냈다. 이는 당기 순이익의 약 8%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2010년 한해 동안 몬드라곤의 인건비, 즉 월급여로 책정된 금액은 총 약 3조 8천억원이고 1인당 약 4천6백만원 가량 된다. 이것은 조합원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 약 8만 4천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데, 스페인 국내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급여 차이는 없지만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16,000여명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계산할 경우 스페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조합원들의 연간 평균 급여는 약 5천 3백만원으로 추산된다. 35,000여명의 노동자 조합원들은 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1인당 평균 1억 9천만원의 출자금에 대한 약 7.5%의 이자를 받아왔는데, 이 금액은 1인당 평균 약 천 4백만원이다. 그리고 출자금에 대한 연말 배당은 1인당 평균 6백만원을 웃

도는 정도였다. 이를 모두 합하면 대략 몬드라곤의 노동자 조합원들이 1년간 벌 어간 돈은 1인당 평균 약 7천 3백만원 정도이다. (물론 이자와 배당금등 자본소득 2천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자본구조에 쌓이기만 한다) 스페인 국내의 비조합원 노동자들은 이자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인당 평균 약 5천 3 백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면 된다. 자본소득을 제외한 연간 급여에 관련한 몬드라곤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2010년 총 56,00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은 약 4조 5천억원 가량인데 이는 1인당 평균 약 8천만원 정도가 된다. 남성 노동자들은 약 8천 백만원, 여성 노동자들은 약 6천 4백만원 정도를 받았다. 물론 노동 조합에 소속된 대다수 제조 및 판매직 노동자들의 연간 급여는 이 평균 수치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하도급 업체와 용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여총액으로 계산되지 않고 하도급 내지 용역비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고 하도급 및 용역업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2010년 기준 약 3천 5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그 숫자는 약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현대자동차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몬드라곤의 조합원 노동자들과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간 수입은 거의 엇비슷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경제위기 이전 출자배당금 액수가 2010년 보다 훨씬 높았던 2007년을 비교해 보면 아마도 몬드라곤의 노동자 조합원들이 올 린 수입이 좀 더 많았을 것이다. 몬드라곤 조합원 노동자들의 연간 수입은 평균 적인 스페인 노동자들의 연간 수입을 훨씬 상회한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 들의 연간 수입은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전체 소득 분포에서 상위 20% 위쪽에 해당된다. 하지만 몬드라곤의 비조합원 노동자들과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 들의 상황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수입이나 고용안정성 측면 모두에서 몬드 라곤의 비조합원 노동자들이 훨씬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

몬드라곤에서 비조합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 조합원들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설득 및 포섭’이다. 조합원들은 끊임없이 이들을 같은 식구로, 즉 조합원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반면, 현대자동차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더 싼 값에 대체 할 수도 있는 하도급 및 용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일정한 긴장상태 에 놓일 수밖에 없다. 현대자동차의 2011년 단체협약서 40조에서 이러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 제 40조(하도급 및 용역전환)

1. 생산, 연구, 정비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주처리(모듈 포함) 및 하도급 또는 용역 전환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시 60일전 조합에 통 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2. 판매부문 대리점의 신규로 추가 개소되는 T/O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부문위원회와 산하지회) 및 조합과 심의, 의결한다. 대체개소 및 거점이동 등은 소위원회(부문위원회와 산하지회) 및 조합과 협의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대체개소 및 거점이동시 모지점 관할구역으로 한다. 기타 대리점 관련사항은 기존 노사합의 및 대리점 운영방안 별도합의서에 따른다.
3. 정비부문의 **블루핸즈** (부분정비업체, 지정정비공장) 개설 및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문위원회와 사업부간 별도 합의서에 의해 시행한다. 또한, 정비부문내 **일감 부족시** 외주 또는 하도급 및 용역전환을 중단하고 연간 협력업체 운영계획의 재조정 등을 통하여 최우선적으로 서비스센터내 작업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신차 개발 후 양산되는 생산차종 및 판매권을 이양코자 할 때에는 사전 조합에 통보 후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5. 회사는 하도급 또는 용역업체가 조합의 지적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3회 이상 받은 업체와 재계약시 조합에 사전 통보하여 조합의 의견을 확인(동의) 후 재계약한다.”

3) 한국에서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길

한국에서 몬드라곤 스타일의 기업운동, 즉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운동은 이제 20살의 청년기로 접어들었다. 유년기, 청소년기의 경험치고는 산전, 수전, 공중전 까지 다 치루고 저변은 놀라울 정도로 확장되었다.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큰 흐름은 노동자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으로 모아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기업이 워낙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이후 전체 판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예측하기 힘들만큼 역동성을 지니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고용확대’가 가장 중요한 시대적 화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강해질수록 이 흐름은 계속 확장될 것이라는 점이다.

개별적인 사회적 기업이 몬드라곤처럼 거대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기업집단 형성전략을 통해 몬드라곤보다 훨씬 큰 규모의 기업집단이 등장할 수도 있다. 두 경우 다 지금보다는 훨씬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원주의 실험이 기업집단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 책에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며 지역경제 순환센터 모델을 만들고 있는 완주의 마을공동체 회사 실험처럼 지역발전을 위한 시도들이 더 많은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한국최대의 생활협동조합으로 성장한 아이쿱생협이 속리산 근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생산법인촌 설립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제2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발 제 2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특징

장 중 익 교수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특징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1. 유럽연합 사회적경제 부문에서의 이탈리아의 위치와 특징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가 CIRIEC (International Centre of Research and Information on the Public, Social and Cooperative Economy)에 의뢰하여 조사 연구된 2007년 보고서(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그리고 재단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유럽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및 재단 등의 연락협의회’가 정의하는 사회적경제의 원칙(Charter of Principles of the Social Economy)은 다음과 같음.
 - i) 자본보다 개인 및 사회적 목적의 우선
 - ii) 자발적이고 공개 가입원칙
 - iii)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단은 예외)
 - iv) 조합원, 이용자, 그리고/혹은 일반대중의 이익의 결합
 - v) 연대와 책임 원칙의 견지와 적용
 - vi) 정부당국으로부터 독립과 자율적인 경영
 - vii) 잉여의 대부분은 지속가능한 발전, 조합원의 이익, 혹은 일반대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함.
- CIRIEC가 유럽경제사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정의한 사회적경제의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음.

사회적경제는 "민간이 자율적인 결정과 공개조합원가입원칙에 입각하여 공식적으로 조직한 기업들의 집합으로서 이 기업들은 조합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장을 통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 보험 및 금융을 제공하되, 의사결정과 조합원간의 잉여 혹은 이윤의 배분이 조합원이 기여한 자본량이나 수수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조합원들은 1표를 가지는 기업들임. 사회적경제는 또한 민간이 자율적인 결정과 공개조합원가입원칙에 입각하여 공식적으로 조직한 조직들도 포함하는데, 이 조직들은 가구를 위한 비시장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로

부터 발생하는 잉여는 이러한 조직을 설립하고, 통제하고, 혹은 자금을 제공하는 경제주체들에 의해서 전유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님.”

- 위에서 논의된 사회적경제의 개념에 따라 분류된 협동조합, 공제조합, 민간단체 등에 종사하는 경제 인력을 조사한 결과, 15개 국가 유럽연합에서의 사회적경제부문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6.7%에 해당하는 11백만명을 고용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부문으로 나타났음. 10개 신규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4.2%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표 1> 참조).
-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부문은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에 고용된 인원이 837천명, 협회와 재단에 고용된 인원이 499천 명 가량 되며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고, 사회적기업도 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이탈리아의 공제조합에서 고용된 인원은 989명에 불과하고 협동조합에 고용된 인원이 836천 명에 이룸. 이 중 사회적협동조합에 고용된 인원은 189천 명에 달하고 있음. 협회에 고용된 인원은 294천 명에 이르고 재단 및 위원회에 고용된 인원은 205천 명에 이룸.

<표 1> 유럽연합에서의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고용현황 (2002-2003)

국가	협동조합	공제조합	협회/재단 (associations/ foundations)	합계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벨기에	17,047	12,864	249,700	279,611	6.9%
프랑스	439,720	110,100	1,435,300	1,985,150	8.3
아일랜드	35,992	650	118,664	155,306	9.0
이탈리아	837,024	주1	499,389	1,336,413	6.2
포르투갈	51,000	주1	159,950	210,950	
스페인	488,606	3,548	380,060	872,214	5.4
스웨덴	99,500	11,000	95,197	205,697	
오스트리아	62,145	8,000	190,000	260,145	6.9
덴마크	39,107	1,000	120,657	160,764	
핀란드	95,000	5,405	74,992	175,397	
독일	466,900	150,000	1,414,937	2,031,837	
그리스	12,345	489	57,000	69,834	1.8
룩셈부르크	748	n/a	6,500	7,248	9.5
네덜란드	110,710	n/a	661,400	772,110	
영국	190,458	47,818	1,473,000	1,711,276	6.1

주1: 공제조합의 수치는 협동조합에 포함됨.

출처: Chaves and Monzon (2008)

2.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현황, 역사, 특징

1) 협동조합의 현황

- 2005년 기준 이탈리아 협동조합경제는 1130억 유로 (약 170조원)을 생산해 내며, 1,056,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700만 명 이상으로 꾸준히 늘고 있음. (이탈리아상공회연합의 보고서, 2006)
- 농업 및 수산업
(총 노동자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 1971: 39%, 2001: 37%)
- 식음료산업 (6.3%, 9.7%)
- 운송, 저장, 통신 (4.9%, 12.9%)
- 은행 및 금융 (8.3%, 14.1%)
- 교육 (1%, 13%)
- 부동산경영, 렌탈서비스, 컴퓨팅 등 (1.6%, 9.4%)
-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1970년대, 특히 198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

〈표 2〉 분야별 협동조합 노동자 수

	1971	1981	1991	2001
농수산	32,660	33,795	27,948	36,917
제조업	44,213	90,355	112,762	85,815
건설	32,168	58,811	61,654	57,796
도소매	25,386	44,078	83,611	74,047
기타 서비스	73,050	135,396	270,837	531,517
사회적 협동조합	27,510	149,147		
합계	207,477	362,435	584,322	935,239

출처: Zamagni and Zamagni (2009)

〈표 3〉 센서스에 나타난 협동조합, 1951~2001

	협동조합 수	전체 기업에 대한비율(%)*	노동자 수	전체 노동자 수에 대한 비율(%)*
1951	10,782	0.7	137,885	2.0
1961	12,229	0.6	192,008	2.2
1971	10,744	0.5	207,477	1.9
1981	19,900	0.7	362,435	2.8
1991	35,646	1.1	584,322	4.0
2001	53,393	1.2	935,239	5.8

주: *공공기관 제외

출처: 이탈리아 통계청 Istat, Zamagni and Zamagni (2009)에서 재인용

- 1951년에 협동조합의 평균 규모는 다른 형태의 기업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협동조합의 평균 피고용자수는 12.8명, 다른 형태의 기업은 평균 24.6명), 2006년에는 협동조합당 평균 노동자수는 20.7명이었는데, 이는 다른 형태의 평균 피고용자수 7.7 명의 거의 3배에 이름 (Centro Studi, 레가협동조합의 싱크탱크, www.legacoop.it/centrostudi), 2001년 기준 전체 직원 중의 45.5%가 여성이었으나 전체 기업의 통계를 보면 여성 직원수는 38%였음.
- 이탈리아의 산업구조는 8:2정도의 비율로 중소기업이 월등함. 세계적인 수준의 중소기업이 존재함. 금융 중심의 제3차 서비스업보다는 기계, 섬유 등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음.
-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협동조합이 1970년대 이후에 크게 증가하였음. 2004년 현재, 53천 개 조합 중에서 105개 대규모 조합이 전체 협동조합 조합원수의 58%를 차지하고, 전체 협동조합 매출액의 34%, 전체 협동조합 종업원수의 22%를 차지함.

〈표 4〉 500인 이상을 고용한 협동조합 기업

	기업 수				노동자 수			
	1971	1981	1991	2001	1971	1981	1991	2001
농업	1	3	0	0	2,166	3,815	0	0
수산업	2	0	0	0	1,063	0	0	0
제조업	3	7	13	13	1,980	5,065	13,476	16,522
식품 가공업	3	7	8	10	1,980	5,065	6,193	13,429
건설업	3	17	15	7	3,344	15,690	12,269	5,943
도소매	5	11	15	16	2,899	9,000	21,804	35,095
호텔 및 식당	0	2	3	5	0	1,528	3,986	15,555
운수 및 기타	8	4	1	17	14,231	2,984	553	11,569
금융중개	6	12	30	24	9,518	21,270	40,707	55,584
시설 관리 서비스	0	2	11	34	0	1,468	11,709	57,477
청소업	0	1	9	32	0	1,468	9,776	47,150
건강 및 기타 서비스	0	0	0	3	0	0	0	3,329
기타 사회적 서비스	0	0	1	2	0	0	1,019	1,685
합계	28	58	89	121	35,201	60,820	105,523	202,759
조합당 노동자수					1,257	1,049	1,186	1,676

출처: Zamagni and Zamagni (2009)

2)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특징

-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첫째,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은 농협, 소협, 신협뿐만 아니라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동조합이 발전해 왔음.
- 둘째,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중립적이지 않고, 비정치적이지 않으며, 종교에 중립적이지 않음. (Zamagni, 2006)
- 레가협동조합에서는 오랫동안 구이탈리아 공산당과 사회당에서 추천된 이가 회장으로 선출되는 관계가 있었으며 이사회 구성 역시 대부분은 공산당원과 사회당원이었음. 그런 이러한 운영체제는 1990년대 들어와 해체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에 결론이 났다. 1996년에 레가협동조합 회장으로 선출된 바르베르니씨는 레가협동조합 최초로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은 회장이었음.
- 독일의 나치체제하에서 독일의 소비자협동조합에 해체된 것처럼 무솔리니의 파시즘 치하에서 엄청난 탄압을 받았으나 독일과 다르게 협동조합이 사라지지 않았음. 이탈리아에는 한때 2만 5천 여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이들 중 1만 2천 개의 협동조합이 살아남았음. 파시즘은 폭력으로 많은 협동조합을 파괴했으며 또 일부 협동조합은 국가통제형의 기업으로 변질시켰음.
- 셋째,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세 가지 갈래로 발전해왔고, 이러한 세 가지 갈래의 협동조합은 각각 총연합회가 조직되어 있고 수평적 수직적 네트워크 조직이 결성되어 있음.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들은 1886년에 전국조직 전국협동조합, 공제연합회(Lega Nazionale delle Cooperative e Mutue)를 설립함. 이 조직은 가톨릭, 사회주의, 공화주의 협동조합이 모두 포함된 단일 전국조직이었음.

1919년 가톨릭계 협동조합이 탈퇴하여 이탈리아협동조합연맹(Confcooperative)를 창립하였음.

- 자유주의적 전통(AGCI, 1952)
- 사회주의-공산주의 전통(Legacoop, 1945)
- 카톨릭 전통: 교황 레오 13세의 사회적 참여 (Confcooperative, 1945), 이 조직에서 분리되어 나온 조직(UNCI, 1975)

- 협동조합연맹(Confcooperative)은 소규모 협동조합을 유지한 채 사업연합 형태를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에 레가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업 그 자체의 규모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
- 레가협동조합은 보험 분야에서 중요한 존재인 반면에 협동조합연맹은 그렇지 않음. 레가협동조합에서 생협은 시장의 선두주자인 반면에, 협동조합연맹 소속의 생협은 틈새시장에서 중소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농협은 양쪽 연합회에 모두 중요하지만 협동조합연맹이 농협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노동자협동조합은 레가협동조합연맹 측에서 강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양 측 모두 강한 편임.

〈표 5〉 이탈리아 협동조합 운동(2006년 기준)

	기업 수	매출액 (10억 유로)	조합원 수	직접 고용 수
Legacoop	15,200	50	7,500,000	414,000
Confooperative	19,200	57	2,878,000	466,000
AGCI	5,768	6	439,000	70,000 ^a
UNCI	7,825	3 ^a	558,000	129,000
Unicoop	1,910	0.3 ^a	15,000	20,000 ^a
위에 속하지 않는 조합	21,561 ^b	3 ^a	100,000 ^a	150,000 ^a
합계	71,464	119	11,490,000	1,249,000

출처: Zamagni and Zamagni (2009)

- 넷째,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지원을 위한 금융 및 경영지원시스템을 잘 갖추어있으며, 이를 위해 협동조합상호지원기금을 법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 FINEC(협동조합운동을 위한 전국금융회사)는 1987년에 설립된 투자은행으로 형태는 주식회사,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자금을 직접 조달하려는 목적하에 레가와 이탈리아 최대 국영신용기관인 IMI가 공동설립했음. 기능은 협동조합의 벤처캐피탈 제공, 장기투자 제공, 금융서비스 제공(시장분석 및 리스크 분석, 상담기능 포함), 초기 운전자금은 500억 이였음.
- 각 계통의 협동조합조직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컨소시아(Consortia)를 구성하였음. 이러한 컨소시아는 1980년대 말에 처음으로 등장하

였는데, 2008년 현재 약 3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Daniele 외, 2009). 컨소시아는 훈련서비스, 기술서비스, 관리서비스, 지식 및 정보제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임금대장, 회계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며, 더 큰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마련을 준비하기도 함. 또한 Confcooperative의 지원을 받는 CGM (Consorzio Gino Mattarelli)나 Legacoop의 지원을 받는 Farsi Prossimo 등과 같이 규모가 큰 컨소시아는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협동조합계통조직인 Confcooperative와 Legacoop는 더 나아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하의 수많은 협동조합으로부터 출연기금을 조성하였음. Confcooperative에 의하여 조성된 Fondosviluppo와 Legacoop에 의하여 조성된 Coopfond는 일종의 협동조합 상호지원기금이라고 할 수 있음. 이 기금의 모든 회원들은 연간 당기순이익금의 3%를 이 기금에 출연하고 있음. 이 기금의 활용 범위에 의해 일정정도의 법적 제한이 있으며 이는 협동조합의 혁신과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전국에 걸쳐서 협동조합의 깊은 뿌리가 있음.
(〈표 6〉 참조)

- 협동조합 직원수를 남부와 중북부로 비교해 본다면 2대 10의 비율임. 남부이탈리아에는 수협, 사회적 협동조합, 농협 등이 발달되어 있고, 중북부에는 생협과 자영업자협동조합이 앞서 있으며, 노동자협동조합이 발달되어 있음.

〈표 6〉 협동조합의 지역별 고용 현황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사회적 협동조합 2001년
	1971년 비율(%)	2001년 비율(%)	증가율 (%)	
북서 지역 조합	23.5	27.0	3.4	31.7
북동 지역 조합	39.8	31.0	1.9	28.3
에밀리아-로마냐 조합	25.1	16.9	1.6	
중앙 지역 조합	16.7	19.9	3.5	20.7
투스카니 지역 조합	8.5	6.7	2.0	
본토 남부 지역 조합	13.0	15.1	3.4	10.0
도서 지역 조합	7.0	7.0	2.8	9.3
합계	100	100	2.8	100

출처: Zamagni and Zamagni (2009)

3)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

-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은 실업문제가 심각했던 1970년대 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의 자발적인 활동에서 출발하면서 협동조합로 발전하였음.
-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1970년대 트리에스테에서 일어난 장신장애자의 격리 입원에 반대하는 운동이 배경이 되어 정신장애 및 약물의존증환자, 이민자, 장기실업자, 노숙자, 출소자 등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생겨난 협동조합.
- 당시 이탈리아에서 기업의 지위를 가지면서 배분되지 않는 이윤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협동조합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에 있어서 회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소규모 자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기존의 협동조합의 지위 하에서는 생산 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을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데, 그 이유는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공중의 이익을 위한 활동은 할 수 없었기 때문임.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1년 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이라는 조직형태가 생겨났음.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들에게도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졌으며, 회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유급근로자, 자원봉사자, 서비스 수혜자(장애인, 노인 등), 후원자, 공공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합에 참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탈리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이탈리아 사회적기업의 수는 총 7,363개이며, 사회적기업 종사자는 278,849명에 달하였음.
- 종사자를 좀 더 세분해 보면 정규직 근로자 211,307명, 계약직 근로자 31,329명, 자원봉사자 30,478명, 공공근로자 3,415명, 임시직근로자 1,287명, 종교관계자 73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 보건, 교육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전자를 A유형이라고 하고 후자를 B유형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두 유

형 간에 엄격한 구분을 뒤서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하는 것, 즉 우리나라의 혼합형 사회적기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¹⁾

- 전체 사회적협동조합 중에서 2003년 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A유형)이 57%, 노동통합형(B유형)이 43%이며, 고용된 근로자 기준으로 A유형이 70%, B유형이 30%, 또 2005년 총생산액 기준으로 A형과 B형의 비율은 75% 대 25%로서 A형 사회적기업이 생산이나 매출 측면에서 대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활동영역을 보면, A유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공공부문과의 거래가 대부분으로 사회적기업의 59.1%가 사회적 돌봄 영역, 교육 및 연구기관이 전체의 21%를 차지하며, 그 밖에 문화 및 스포츠/레크리에이션(10.7%), 보건(9%), 기타(0.2%)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
- 이에 비해 B유형 사회적기업은 농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도 퍼져 있어서 민간부문과의 거래가 활발함.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A유형은 고객의 77%가 공공부문인데 반해 B유형의 주요고객은 민간부문이고 공공부문의 비중은 40%로 낮은 편임. 이탈리아의 B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들은 정신장애, 신체장애자, 마약중독자, 알코올중독자, 보호관찰 중인 출소자 등으로서 특정한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며, B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러한 취약계층을 최소한 30% 이상 고용해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세가 면제됨.
- 사회적 협동조합은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민간기업에 외주를 주는 경향에 의하여 발전하게 되었음.
-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1991년 법이 제정되기 15년 전에 사회적 연대협동조합이 노동공동체, 리셉션 공동체, 치료 공동체 등과 함께 시작한 활동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들 조직은 수혜자를 ‘위해’ 서가 아니라 수혜자와 ‘함께’ 일한다는 창립 가치로 움직였는데, 차츰 기업조직으로 변해갔음.
- 1990년대에 지방과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재단이나 단체 및 자원봉사조직들이 결합되면서 이탈리아 전역에 수만 개의 단체들이 활동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실제 노인과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영역에서 공공부문(19%와 15.4%)보다 제3부문(81%와 84.6%)의 비율이 훨씬

1) 이탈리아정부는 이러한 혼합형 사회적 기업을 허용하고 협동조합형태이외의 사회적 기업을 허용하기 위하여 2005년에 사회적 기업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높다는 점에서도 드러남. 이는 지방정부가 이전에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사회공공서비스 부문과 복지 전반에 걸친 권한을 이양 받았으며, 고용서비스들도 최근에는 지방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었음.

- 사회적 협동조합운동의 저변에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사회방침과 연대정신, 특히 장애인들에게 보살핌과 나눔의 손길을 보냈던 여성들의 관대함에서 유래했음. 나중에 사회단체 및 가족집단, 서비스전문가, 노동조합이 노동을 통하여 장애인 지원을 시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 분야의 협동조합이 발전하게 되었음.

4) 이탈리아 협동조합관련 제도의 특징

- 헌법조항: 1947년에 제정된 새로운 이탈리아 헌법 제 45조에서는 “공화국은 비투기적인 본성을 지니며 호혜적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한다. 헌법은 가장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장려하고 적정한 감독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성격과 목적이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전국해방위원회(취)가 헌법초안을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 유사협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적인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였다고 함)
- 헌법 제1조 “이탈리아는 노동에 기초를 둔 민주공화국이다.” 중략
- 헌법 제2조 “공화국은 개인적으로나, 인격을 갖고 닦는 장이 되는 사회적 조직에 있어서나 인간은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승인하고 또한 이를 보장하고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인 연대에 기초하여 회피할 수 없는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 헌법 제41조 “사적 경제활동은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다. 사적인 경제활동은 사회적 이익에 반해서 또는 안전, 자유, 인간존중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영위해서는 안 된다. 공적이거나 사적인 경제활동이 사회적 목적에 따라서 조정되도록 적당하게 계획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46조 “노동의 사회적 및 경제적 향상을 위해서, 또한 생산의 필요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공화국은 법률이 정하는 방법과 한도에서 노동자가 기업의 관리에 협력할 권리를 지님을 인정한다.”
- Besevi law(1947)은 협동조합의 성장과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 협동조합의 감독, 등기, 중앙회, 상호부조의 요건, 관할관청의 의무 등을 규정했음. 1949, 1950, 1951, 1971년 개정 후 1992년에는 조합원제도 수정, 전국협동조합 공제기금 설치 등의 조항이 신설되었음. 이 법은 초기에 이 법률이 요구하는 주요한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규제에 따르지 못하는 많은 협동조합을 해산시켰음.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나자 협동조합운동은 모든 경제 부문

에서 발전하였고 경제적인 효율성과 사회정의란 측면에서 이탈리아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음.

- 1947년의 법은 협동조합의 법적 요건을 1인 1표 의결권, 출자금에 대한 이자제한, 이윤의 20%는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으나 최소 20%는 법정준비금으로 적립, 해산 시의 순자산은 조합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상호부조의 정신과 합치하는 공공 목적에 양도함 등으로 이 요건에 부합하는 협동조합의 감면조치 (생협은 25%, 농협은 100% 등)를 인정했음.
- 1977년까지는 Pandolfi law로 모든 협동조합의 비분할 적립금은 완전 비과세대상으로 인정되어 2002년까지 유지되었음. 협동조합의 자본을 비분할자본으로 만들어서 금융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사적 이익도 포기하려는 조합원의 의지를 표현하고 봉사기능을 우선하고 협동조합의 세대 간 전통과 연속성을 대변함.
- 20세기 초반에서의 협동조합법: 컨소시움의 결성 허용: 민주적 경영과 규모의 경제 동시 추구 가능
- 1977년 법: 불분할 내부유보금에 대한 세금 면제 조항: 협동조합의 자본축적에 크게 기여
- 1983년 법: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를 보유하도록 허용 (Legacoop의 보험회사인 UNIPOL은 상장된 주식회사임)
- 1992년 법: coop member-financial backer와 cooperative privileged shares를 도입

3.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협동조합 현황과 특징

1)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특징

- 볼로냐는 에밀리아-로마냐의 수도인데, 인구 440만 명의 에밀리아-로마냐 주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들 중의 한 곳으로 알려져 있음. 1인당 지역소득 기준으로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소득이 높은 지역임. (총 20개 주)
- 그런데 1970년도에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의 경제상태는 이탈리아 20개 주 중에서 거의 바닥에 있었다고 함. 그러나 오늘날에는 유럽연합의 122개 지역 중

에서 10위로 잘 사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 실업률도 7%수준에 불과하고 지역의 1인당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30%가 높은 편임.

- 농업과 공업,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발전한 지역임.
- 전자, 기계, 섬유, 식품, 의료기기, 세라믹 산업 등이 발전되어 있는데, 2004년 기준으로 420,401개 회사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63.4%로 이탈리아 평균인 51.3%보다 훨씬 높은 편임.
- ERVET: 공사성격의 기구, 1973년 설립, 지역개발공사 주도 지역혁신정책과 클러스터, 이 지역은 교육과 훈련을 통한 기업가적 혁신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음.
- 42만 여개의 기업 들 중에서 90%이상이 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음. 500 명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5개에 불과한데, 이중 두 개가 협동조합 (SACMI, CMR)임.
- 역사적으로 보면, 농업중심의 남부이탈리아는 노르만 왕국, 나폴리왕국으로 대표되는 봉건적인 지배구조와 보수적인 가톨릭의 아성이었다는 역사적 배경 하에서 만성적인 실업과 후진적인 경제구조가 온존한 지역이고,
- 밀라노, 토리노 등의 도시를 포함한 북부이탈리아는 대규모 공업지대가 형성되어 가공형 수출기업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지역임.
- 에밀리아-로마냐주, 토스카나 주 등 중부이탈리아지역은 피렌체, 시에나, 피사, 볼로냐, 리미니 등 중세자치도시가 발달한 곳이었고 당시의 수많은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의 전통 속에서 일찍부터 자립적이며 기술 중시의 소규모 직공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하는 경제가 발전한 곳임.
레가의 협동조합들은 주로 이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형성해왔음.
- 볼로냐는 인구 38만 명의 대학 도시(볼로냐 대학, 1088년에 설립됨,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단테(Dante),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등이 이 대학 출신임), 위성도시까지 포함하면 100만 도시라고 할 수 있음.
- 식품가공, 담배, 전기, 축산, 신발, 면직, 화학인쇄, 출판, 기계, 상업(도소매)등이 발전함. 포장기계부문에 특화, 50인 이하의 중소기업 비율 80%를 차지함.

- 1945~1999년까지 자유주의적이고 좌익성향의 시장이 계속 집권하였으며, 레가의 본부가 여기에 있으며, 노동자협동조합 및 농협의 밀집도가 강한 편임.

2)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협동조합 현황

- 에밀리아-로마냐주 지역에서는 주민 2명 중에 한 명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협동조합은 지역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전체 고용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협동조합이 고용하는 인원은 1971년에 53,780명에서 1981년 94,937명, 1991년 111,097명, 2001년 144,480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음.
- 현재 7,500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 3분의 2가 노동자협동조합임.
- 이탈리아에서 에밀리아-로마냐, 트렌티노와 투스카니 지역에서 협동조합운동이 가장 왕성했고,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이 협동조합부문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음.
- 소매, 건설, 농업, 주택, 제조,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협동조합은 매우 강한 편임.
- 협동조합은 생산, 유통, 훈련, 마케팅, 네트워크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인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음.
- 대규모 엔지니어링, 건축, 유적지 재건프로젝트 등이 노동자들이 소유한 건축 협동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대규모 제조협동조합들은 생산품의 50-90%를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있음.
- 볼로냐 지역에서 소비자협동조합(Coop Italia)과 슈퍼마켓협동조합(CONAD) 모두 레가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으며, 생필품시장의 1위 기업들임.
- 에밀리아-로마냐 주에는 곡물, 감자, 토마토, 양파, 옥수수 등 및 그 가공품, 포도 등 과일과 와인 등 8100개의 농협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2,160개가 볼로냐에 있음.

3) 몇 가지 협동조합 사례

가. 노동자협동조합 밀집지역 이모라(Imola)

- 포 계곡에 위치한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중소 전원도시, 인구 64천 명(2000년), 교외인구 포함하면 12만 명. 132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음.
- 이탈리아에서 가장 협동조합화 된 도시라고 할 수 있음. 주민 2명 중 1명은 조합원이고, 직장의 17%는 협동조합이 제공, 협동조합이 고용한 인원은 13,487명, 지역수입의 약 60%가 협동조합에서 창출됨. 이는 제조업분야의 노동자협동조합의 성과에 기인함. 1870년대 로마냐 혁명적 사회당을 결성하여 협동조합운동을 추진한 배경을 갖고 있음.
- 대표적인 노동자협동조합이 SACI (Sacmi Cooperativa Meccanici di Imola)임.
- 도자기산업용기계, 설립생산분야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기업. 음료생산라인 및 포장라인, 식품가공라인 및 검사라인, 플라스틱관련 설비를 취급, 현재 23국에서 3500명을 고용하고 생산량의 85%를 수출하고 있음. 1919년 9명의 실업자 기계공에 의해 설립됨. 1차 세계대전 후 불황기에 실업한 9명의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은행과 당시 사회당 정부였던 지자체가 빌려준 체육관을 이용하여 플랜트공장을 세웠음. 이들은 이익의 25%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50%는 적립, 20%는 조합원, 남은 5%는 협동조합사상의 추진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왔음.

나. COOP RENO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코프 레노는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을 활동구역으로 하여 1988년에 설립됨.
- 처음에는 6개의 가게로 시작하여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작은 가게나 다른 협동조합을 인수합병하여 성장하여 왔음.
- 2011년 현재 총 36개 매장을 운영하고, 직원은 769명, 조합원은 7만 2,619명, 연 매출액은 156백만 유로임.
- 조합비는 가입시 25유로임.

- 코프레노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사의 웰빙과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생협매장에서 창출된 이익의 상당부분을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음.
-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와의 협력사업 (올바른 식습관 및 소비방식, 환경과 이주민문제 등에 대한 교육자 고용과 프로그램 지원), 빈곤에의 대응 (매장 내 상품가치가 낮아진 식품의 비영리기관에 기부, 매년 11월 마지막 토요일에 Food Collection Day에 참가), 환경보호(유기농,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등), 지역문화홍보와 활동 촉진(지역내 연극이나 영화극장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영화로 제작하거나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 지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병원, 연구소, 학교 등에 의료장비와 컴퓨터, 장학금 지원 등)을 펼치고 있음.
- 2011년의 경우 조합원이용금액의 1.94%에 해당하는 금액(1인당 약 28유로)의 이용고배당을 하고 세금내고 난 후 100만 유로 이익금 중 3%는 coop fund, 30%는 조합원 지분화 가능한 적립금, 67%는 불분할 적립금으로 처분하였음.
- 코프레노는 1989년부터 매장운영을 하기 시작하여 1990년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하였는데, 설립 초기에 레가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인 COOP Italia로부터 사업 및 경영 측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안정화될 수 있었다고 함.

다. ANSOLINI (주택협동조합)

- 안솔리니는 볼로냐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협동조합의 하나로 1948년 볼로냐 지역에서 건설노동자들의 결성으로 설립되어 초기에는 하나의 집을 공동으로 지어서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사람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고 함.
- 조합원은 11,500명, 상근직원은 20명, 조합의 자산규모는 6천만 유로임. 건축의 상당부분은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고용인원은 많지 않음. 조합원은 170 유로의 가입비를 내고 가입할 수 있으며, 탈퇴할 수 있음.
- 볼로냐에는 건설, 주택분야에서 15-20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볼로냐 주택공급량의 50%를 담당하고 있음.

- 안솔리니는 주택의 건설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주택을 분양해주는 사업과 영구 임대 등 임대주택사업을 펼치고 있음. 조합원이 분양에 당첨되면 2년에 상환하게 되어 있고 분양받지 못하면 가입비를 돌려줌.
- 안솔리니는 2000년부터 친환경 건축기법을 통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있고, 재활용될 수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지향하고 있음.

라. LA RUPE (돌봄형 사회적협동조합)

- 1984년에 가톨릭교회에 의해서 설립된 라 루페는 1999년에 사회적 협동조합 B형으로 전환되었고, 2004년에는 A형의 자격도 갖추게 되었으며, 2010년부터 혼합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정되었으며, 알콜중독자, 약물중독자, 노숙자들을 돌보고 있음.
- 연간 수입은 610만 유로 (80%는 공공기관, 20%는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발생)이고 142명의 직원 중 5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고, 출자금은 1인당 평균 600유로임.
- 직원 142명 중 90명은 재활교육을 시키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30명은 마약자 등을 보살피는 일, 그리고 15-20명은 관리에 종사하고 있음.
- 직원의 조합원 가입하는 동기는 직장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때문이라고 함. 또한 이익이 발생하면 일부를 조합원에 환원해주는 것도 약간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함.
- 사업과 서비스 중에서
B유형 일자리: 병원, 요양원 세탁, 청소, 전기보수, 어린이공원 관리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줌), 정규직으로 35명, 그동안 A형에서 B형으로 전환되어 왔는데, 35명으로 할당인원이 채워져서 지금은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A유형 서비스: 마약중독자 대상 (3개의 커뮤니티를 대상), 알콜, 코카인(daycare 심리치료), 이민자, 홈리스 쫓겨난 대상: 부모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 총 250-300명 서비스 대상자
A형 서비스가 중심이고, B형의 경우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지출초과). 이는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기업들이 단순일자리를 감축하기 때문임.

- 운영비용은

A형의 경우, 주, 시 등에서 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음.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와 운영을 결정하고 있음.

B형의 경우: 직원들이 직접 사업을 개척하고 있음.

- 가톨릭 소유의 요양시설을 임대료를 내고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며, 12개의 커뮤니티의 시설을 임대하여 쓰고 있음.

- 볼로냐 주변 지역에서 B형 사회적 협동조합은 많지만 마약중독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없음.

- 자원봉사자조합원 2명이고 비조합원자원봉사자도 많은 편임. 후원조합원은 없음. 후원자는 association에 많은 편임.

- 라 푸페는 이탈리아가 사회복지재정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사회기금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공공기관과 일하면서 어려움이 적지 않음. 첫째, 결제기일이 늦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할 정도인데, 이는 모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임. 특히 남부지방에서 소규모 협동조합은 문닫는 경우가 많음. 둘째, 행정(규정 등)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가 용이하지 않음, 행정과의 계약기간은 마약의 경우 4년, 홈리스 잠자리 제공의 경우는 1년 6개월에 불과함.

- 라 루페는 레가코프 소속의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코프펀드, 코프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 필요성이 높지 않아서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음. 다만 경영컨설팅의 도움을 많이 받아 왔음.

마. CADIAI (교육,돌봄형 사회적 협동조합)

- 카디아이는 A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1974년에 볼로냐에 설립됨. 비영리조직으로서 ONLUS에 등록되어 있으며, 레가코프와 Lega Coop Sociali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종업원은 1,246명 (여, 1076)이고 이 중 조합원은 63%이며, 이사회는 여성비율은 86%임.

- 2011년 매출액은 33백만 유로 (약 500억 원)임.

- 카디아이는 사회, 교육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공동체의 이익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또한 조합원의 안정된 고용, 최고의 경제, 사회, 전문적인 근무여건뿐만 아니라 자격훈련 프로그램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맞춤형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킴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더 나아가 참여와 협력, 기업의 책임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카디아이는 다음과 같은 활동분야로 나뉨: 노인을 위한 사회보조서비스(홈케어, 주간 간호서비스), 아이들을 위한 교육서비스(놀이방, 놀이터), 사회부적응아동을 위한 교육서비스(세미주택서비스, 주간병원, 교육단체 및 지역적 프로젝트), 사회적, 심리적 문제, 중독증, 범죄, 성인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재활서비스(주거서비스, 세미주택서비스, 지역서비스, 홈케어), 예방 및 보호서비스(근로자의 건강과 근무지에서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직운영 방법론, 재정관리 활동 컨설팅).
- 카디아이는 UNITER에서 발행하는 ISO 9001이라고하는 품질보증서를 장애인, 노인, 어린이, 성인 등 네 가지 분야에서 2008년에 획득하였음.
- 카디아이는 25개의 유치원(Gaia)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로시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어린이들의 놀이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유치원교사의 월평균 급여가 사회보장세를 제외하고 약 1000유로로 공립유치원교사의 월평균 급여 1500유로에 미달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아동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함.
- 카디아이는 2개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을 위하여 7개 요양시설, 5개 주간케어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시설은 시가 위탁운영하거나 조합이 직접 소유하는 경우도 있음. 시설이용비용은 본인과 주정부가 분담하고 있음.
- 카디아이는 1974년에 27명의 조합원(대부분 여성)으로 시작하였는데, 대부분 베이비시터나 일시적 요양사들이었음. 현재 카디아이의 자본금은 1백만 유로정도이며, 대표는 750명의 조합원이 13명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선출됨.
- 현재 카디아이는 CARABAK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협동조합, 급식협동조합 등 9개 지역 협동조합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400만 유로를 출자하여 10개의 유치원을 건설 중임. 지방정부가 368만 유로를 지원하고 14백만 유로를 대출하여 추진하고 있음.

4. 이탈리아 사회적경제부문으로부터의 시사점

-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협동조합과 가톨릭에 의한 자선단체(협회, 재단 등)의 전통이 강한 나라로서 협동조합적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
- 이러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해 왔음.
- 이러한 협동조합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요인은 크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음.
- 첫째, 한국의 협동조합들이 정부에 계통 조직화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동종 및 이종 협동조합들간의 수평적, 수직적 형태의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서로 협력하고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는 전통을 강력하게 수립해왔음 (Menzani and Zamagni, 2010).
- 둘째,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체제를 갖추고 더 나아가 협동조합연대기금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문제에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음. 한국의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협동조합지원은행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전무(농협은 왜곡된 형태로 농협경제사업 지원하고 새로운 농업협동조합 설립을 차단)하다는 점에서 이는 가장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 분석 해야할 부분으로 판단됨.
- 셋째,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발전경로의 다양성을 상호 인정하면서 발전해왔음. 전통적으로 레가협동조합은 지역협동조합의 규모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강조한 반면에서 가톨릭계통의 협동조합연맹은 지역에 밀착된 작은 규모의 협동조합을 강조하고 틈새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음.
- 넷째,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이탈리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제도 및 인센티브방안을 구축해왔다고 할 수 있음. 협동조합의 정체성 유지를 조건으로 한 세제혜택, 유사협동조합 난립 방지를 위한 감독체제, 협동조합 간 협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는 협동조합연대기금 설치와 세제혜택과의 연계, 새로운 시장 및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방법의 허용,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촉진(고등학교에서의 협동조합교육 연 30시간 의무화 등)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제2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토 론 1

생산 · 분배 · 소비에 대한 다른 상상의 구현

오 귀 복

아이쿱생협 활동연합회
교육위원장



생산·분배·소비에 대한 다른 상상의 구현

오귀복(아이쿱생협 활동연합회 교육위원장)

1. 1956년 스페인 바스크지역 몬드라곤시에서 시작된 노동자생산협동조합운동이 자산 규모 54조원, 판매출 22조원, 고용인원 8만 4천명으로 성장한 것은 ‘기적’으로 표현될 만큼 놀라운 결과입니다. 몬드라곤의 기적이 의미 있는 것은 몬드라곤(MONDRAGON)의 기업운영 방식과 분배구조일 것입니다. 자본형성과 경영, 그리고 노동이 몬드라곤의 소유자인 노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회사와 달리 기업의 목적이 주주들의 이윤극대화에 있기보다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의 문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몬드라곤 기적의 핵심은 ‘상생’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공정함과 호혜의 원칙을 지켜온 결과 바스크 지역생산의 8.3%, 고용의 1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몬드라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몬드라곤의 성장의 동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 지도력
- 노동금고: 개발은행의 성격/ 노동금고가 제공하는 기술적인 지원과 대부, 그리고 다른 여타의 지원들이 노동금고의 영향력과 기초가 되었음. 게다가 연합협정에 의해 노동인민금고는 협동조합들에 대한 강한 법률적 통제력도 가지고 있음.
- 참여 민주주의
- 지역발전
- 원칙: 조합원 자격개방/1인1표주의/노동자에게 최고 결정권부여/자본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적 도구/노동자들의 경영참여/임금의 균등화/조합간 협동/지역사회발전에 기여/사회 민주화와 정의, 평화 등 보편적 가치 확산/교육기회 제공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협동조합이 규모화 됨에 따라 민주적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지
-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는 점에 있어 소유자로서와 노동자로서 이해의 균형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 경영진에 대한 관리/통제력은 어떻게 확보되는지:
- 성장의 시기가 아닌 하락의 시기에 조합원의 자주관리와 혁신, 헌신성이 발휘될 수 있는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내부 장치는 무엇인지.


2. 2012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생존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의 말처럼 협동조합이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계화에 대응하는 협동조합운동을 소개하는 자료와 방송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스위스의 두 개의 생협이 차지하는 소매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하고 있다는 것과 유럽의 협동조합은행이 유럽전체의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는 협동조합이 유럽에서는 보편적 기업운영의 모델로서 정착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는 협동조합이 보편적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한국사회는 8개의 특별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양한 협동조합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운동진영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새로운 협동조합의 시도
- 협동조합기업운영 모델 창출
- 협동조합의 원칙 준수
- 협동조합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과제 실천

3. 아이쿱생협의 새로운 시도

: 아이쿱 생협은 전국 75개 지역조합으로 조합원 10여만명의 규모로 년 매출 3천2억원/ 고용인원 1천1백여명(임시직 제외)의 연합조직입니다.(2011년 기준)

- 협동조합을 위한 자본형성 : 생협금고 창립
- 구례와 괴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드림파크 조성사업:
=> 윤리적 소비를 넘어 윤리적 생산으로
- 전국적 물류망을 통한 지역생협 활성화
- 다양한 협동조합의 시도: 직원협동조합/ 자회사 분사정책
- 독자브랜드를 통한 생협 경쟁력 확보
- 윤리적 소비운동=> 소비자는 구매자로서 어떻게 생산된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사회적 책임이 소비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는 자신의 권력인 구매력을 제대로 행사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거점 센터 마련: 한밭센터/남원센터/해남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협동조합
- 씨앗재단: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여




제2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토 론 2

해외 협동조합 사례의 시사점

오 은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해외 협동조합 사례의 시사점

오은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최근 3-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가 재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정책적으로도 공동체 주도의 지역발전전략이 강조되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오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사회적경제를 운영해가는 주요 주체인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공포(2012. 1. 26)되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협동조합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특성화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세미나에서 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이해와 한국적 적용가능성을 고민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몬드라곤은 2010년 기준으로 금융, 제조업, 유통, 지식 등 260여개의 회사를 포괄하는 하나의 기업집단이다. 이 사실을 얼핏 보면, “몬드라곤이 현 시점에 유용한 사례인 것일까?”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왜냐하면 올해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지금까지 협동조합으로 인정받기에는 너무 소규모인 공동체조직들에 법인화를 쉽게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준 것이어서, 몬드라곤처럼 대규모 협동조합사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그러나 몬드라곤은 1956년 소규모 협동조합(울고, 기술자 5명, 노동자 10명)으로 시작하여 지난 수십년동안의 노력으로 지금의 대규모 협동조합연합체로 발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몬드라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발제자의 기존 협동조합의 역사, 몬드라곤 사례에 대한 고찰은 이제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양극화의 대안으로서의 생산자협동조합의 유용성, 조합원 배당을 통한 경제적 유인으로 조합원 충성도 강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조합원 신뢰 강화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와 아울러 협동조합의 조직특성상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실효성이 적으므로 협동조합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간접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제자의 해외사례는 정책 출발에 다음의 단초를 제공한다.

첫째, 협동조합은 일차적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시작하며,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에는 지역리더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몬드라곤시는 스페인 내전 후, 정치적 소외지역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쇠퇴지역이었다. 몬드라곤의 여건은 바스크주의 다른 지역과 유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호세 마리아 신부라는 지역 리더가 등장하면서 15년 정도의 주민운동이 진행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리더의 존재가 공동체조직의 발전, 그리고 협동조합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지역리더(또는 잠재적 협동조합 창시자, 운영자)교육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협동조합 결성의 기초로 기존에 있던 공동체 조직을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몬드라곤 사례에서 신부는 기존 성당조직을 다양하게 확대, 활성화시켰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하므로 기존의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형성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규모 확대(이를 통한 상생발전)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는 것보다, 일차적으로는 이미 지역 내 존재해 있는 공동체조직이 협동조합으로 전환될 수 있게 지원하여, 공동체 조직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생적인 공동체 조직에 대한 발굴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작업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원리로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에 제시한 협동조합의 7대 원칙(가입의 자유,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및 홍보, 협동조합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한 교육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추상적인 원칙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성공사례 원칙들이 전파되면 도움이 되리라 본다. 예를 들어, 로치데일의 “이용고 배당의 원칙”을 채용함으로써 조합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충성도를 증진시킨 사례, 몬드라곤의 비조합원에 대한 “설득 및 포섭”을 통한 조합원 증대, 충성도 증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 사례 등이 바로 그것이다.

향후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 요건들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협동조합은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할 수 있으며 배당이 가능하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40%의 공익사업(지역사회재생, 주민 권익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등)을 수행해야 하고 배당이 금지되어 있다. 일반 협동조합은 등록시스템인데 비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재부 인가시스템이며 또한 출자자의 배당이 금지되어 있어 제약이 많은 편이다(단,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은 허용)고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현행 기본법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러 제약을 가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2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토론후기

외국의 사회적경제 추진동향

2012. 4. 16(월)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외국의 사회적경제 추진동향

충청남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기관으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11년도 11차에 걸쳐 사회적경제 연구회를 운영하였고,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기틀을 닦았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충남의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유롭게 토론이 가능한 콜로키움이라는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공무원, 활동가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을 통해 충남의 사회적경제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이 글은 그 첫 콜로키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개요

1. 목적

-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형성을 위한 이론 및 실천방안
-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및 구성원의 역량강화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사업의 발굴 및 정책지원 방안 등

2. 행사 개요

- 1) 일 시 : 2012년 4월 16일(월) 15:00~ 18:00
-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박진도 원장(충남발전연구원)
 - 송두범, 김종수, 박춘섭, 홍은일(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신동호 연구위원(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부)
 - 원외
 - 김영관(충청남도청)외 15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몬드라곤 협동조합 사례연구
 - 김성오 연구위원((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분석

- 장종익 교수(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 대학)

○ 토론

- 오 귀 복 교육위원장 (아이쿱생협 활동연합회)
- 참석자 전원

3. 행사일정

▶사회 : 김종수(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15:00~15:05	■ 개회 - 원장님 인사말
15:05~15:10	■ 콜로키움 소개
15:10~16:00	■ 발 제 - 몬드라곤 협동조합 사례연구 : 김성오 연구위원((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6:00~16:10	■ 휴 식
16:10~17:00	■ 발 제 -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분석 : 장종익 교수(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 대학)
17:00~18:00	■ 종합토론 및 정리 - 좌장: 송두범 센터장(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지정토론: 오 귀 복 교육위원장 (아이쿱생협 활동연합회) - 참석자 전원

◆ 김성오 제1차 발제 [몬드라곤 협동조합 사례연구]

몬드라곤의 소개

- 유럽에는 노동자협동조합이 많이 존재하고,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이 존재한다. 남유럽은 특히 전투적인 조합주의운동의 전통이 있어서 노동자들이 공장을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다.
- 스페인 바스크의 몬드라곤은 인구 3만명 정도의 작은 도시이다.
- 몬드라곤은 기업집단이다. 하나의 가문이 아닌, 35,000명의 노동자가 주인으로 있다. 매출이 22조 규모이고, 8만5천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으며, 그룹은 크게 금융, 유통, 제조, 연구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 조직구조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전형적인 구조이다. 260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120개정도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니나, 그 외의 해외의 자회사들은 협동조합 형태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조합평의회, 이사회가 핵심기구이며, 두 기관의 멤버 3분의 1이 중복되어 있다. 그럼에도 두 기구가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90년대 이전까지의 몬드라곤은 100개정도의 기업이 노동인민금고와의 연합협정으로 연결된 느슨한 기업집단이었다. 그런데 1991년 120여개 기업이 연합조직체제를 구축한다. 그것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MCC)이다. 체제구축의 가장 큰 이유는 유럽통합으로 인한 환경에 변화에 있었다.
- 몬드라곤의 주요품목은 백색가전으로, 매출의 70%가 내수, 30%가 수출이 차지하였다. 그런데 유럽통합으로 인해 관세가 없어지면서 다른 대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대응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또 하나는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 체제는 2006년까지 이어졌고, 2006년에 몬드라곤으로 또 한 차례 경영조직을 재편하였다.

몬드라곤의 고용구조

- 고용구조는 35,000명 정도의 조합원 노동자와 그 외 비조합원노동자들로 구성된다. 비조합원노동자의 대부분은 판매원이다. 해외지사 노동자들은 일반적인 주식회사 임금노동자이다.

몬드라곤의 역사

- 발제문 6페이지를 참조하면, 몬드라곤은 4,000명 정도의 작은 도시, 볼품없는 도시였다. 카톨릭의 호세신부는 이 작은 지역의 돈과 인력과 아이디어를 응집시켜서 협동조합 몬드라곤을 구축하였다. 그것을 하는데 15년이 걸렸다. 그는 지역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당시는 스페인 내전으로 피폐한 지역의 사람들을 단결시켰다. 이것이 출발점 이었다.
- 56년 첫 협동조합인 울고가 만들어졌고, 노동인민금고가 다음에 만들어졌다. 금고는 협동조합을 지원했다. 이러한 결과 60년대 초반 40개로 늘었다.

- 70년대 초반 주민자치를 시작했고, 몬드라곤은 바스크 주정부와 밀접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지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있다.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힘을 응집해서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협동조합의 3단계

- 1세대 협동조합운동은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반성에서 시작된다. 로버트 오웬의 방적공장이 그 예이다. 그러나 오웬 주도의 방적공장은 엄격하게 보면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다.
- 2세대 협동조합의 시발점은 로치데일 협동조합이다. 1800년대 맨체스터 리버풀 등의 노동자밀집지대에서는 항상 생필품 공급이 부족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팍팍하게 했다. 그러던 중 로치데일의 노동자 30가정이 돈을 모아서 생산자와 교섭하기 시작한다. 바게닝 파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시작한 협동조합은 유럽전역으로 퍼져나간다. 이러한 형태는 비단 소비자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들의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져 간다. 현재의 존재하는 99%가 이러한 협동조합이다. 필요를 집단이 되어 채우는 형태이다. 이것은 보편적인 경제현상이 되었다.
- 3세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일반적인 회사와 구별이 안 된다는 반성인 레이드로의 보고서를 통해 시작된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동조합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의 대표적인 것이 환경문제, 고용문제 등이다.
- 특히 고용문제는 신규채용은 조합원의 감소로 이어지는,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몬드라곤은 매년평균 8·9%의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에 비해 고용은 더 높은 비율로 창출해 내었다. 기존의 조합원의 이익을 배분하는 것보다는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로 하였다.
- 몬드라곤의 노동자 수는 동일한 매출규모를 가진 기업과 비교하여 1.5배 수준이다. 그것은 이익배당을 줄이고, 고용을 늘린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의 경우, 비슷한 매출액을 보이고 있는데(2008년의 경우), 정규직 5만명, 비정규직 1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몬드라곤은 고용창출능력을 보이는 데 이유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해서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용문제를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각 지역별로 마을기업을 추진하려는 그룹들이 많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 장종익 제2차 발제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분석]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특징

- 유럽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및 재단 등의 연라협의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원칙으로 7가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그 중,
 - 1) 자본보다 개인 및 사회적 목적이 우선한다는 점
 -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진다는 점2가지의 원칙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 이탈리아는 사회적경제부문중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전 산업적으로 고르다. 또한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특징은
 - 다양한 부문에서 협동조합이 발전
 - 비정치적이지 않고, 종교에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에 있다.
- 대표적인 협동조합인 레가에서는 최근까지 공산당과 사회당에서 추천된 자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파시즘의 시기에는 많은 협동조합 파괴되었으나, 독일등과 같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은 조합들이 있었다.
- 협동조합연맹의 단위협동조합이 중소규모이고, 레가협동조합의 경우는 큰 규모의 단위협동조합이 많다.
- 또 협동조합상호지원기금 잘 발달되어 있다. 의무적으로 3%를 출원하도록 하였고, 연합조직에 출원하여 상호지원기금을 만들어냈다.
- 전통적협동조합은 ①이용자협동조합 ②노동자협동조합이다. ①에 속하는 것은 농협, 신협, 소비자협동조합 등이고, 생산·투입보다는 이용자협동조합이다. 이용자협동조합의 경우는 고용자가 조합원이 되기에는 어렵다. ②노동자협동조합은 생산과 자본이 같기에 고용과 연결이 된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자본제공자, 서비스생산자, 서비스이용자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다.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협동조합 현황과 특징

- 에밀리아-로마냐주, 토스카나 주 등 중부이탈리아지역은 피렌체, 시에나, 피사, 볼로냐, 리미니 등 중세자치도시가 발달한 곳이었고 당시의 수많은 어소시에이션의 전통 속에서 일찍부터 자립적이며 기술 중시의 소규모 직공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하는 경제가 발전한 곳이다.
- 1945-1999년까지 자유주의적이고 좌익성향의 시장이 계속 집권하였으며, 노동자협동조합 및 농협의 밀집도가 강한 편이다.
- 에밀리아-로마냐주 지역에서는 주민 2명 중에 한 명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협동조합은 지역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전체 고용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 소매, 건설, 농업, 주택, 제조,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협동조합은 매우 강한 편이다.
- 대규모 제조협동조합들은 생산품의 50-90%를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탈리아 사회적 경제부문으로부터의 시사점

- 첫째, 한국의 협동조합들이 정부에 계통조직화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동종 및 이종 협동조합들간의 수평적, 수직적 형태의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서로 협력하고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는 전통을 강력하게 수립해왔다는 점.
- 둘째,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체제를 갖추고 더 나아가 협동조합연대기금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문제에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는 점.
- 셋째,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발전경로의 다양성을 상호 인정하면서 발전해왔다는 점.
- 넷째,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이탈리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제도 및 인센티브방안을 구축해왔다고 할 수 있다는 점.

◆ 토론 요약

발제자 김성오, 장종익씨의 발제 후 지정토론자의 토론과 참석자로부터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오귀복(지정토론자, 아이쿱생협 활동연합회 교육위원장)

- 발표를 통해, 몬드라곤 노동자협동조합은 특징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었다는 점, 그리고 잉여를 고용에 돌렸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기업의 출발이 성직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르고, 성직자가 어떻게 지도력을 만들어 내고 확보하였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
- 노동금고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된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본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노동금고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나, 우리나라의 농협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
- 아이쿱생협 역시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면 소통, 민주주의를 담보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 몬드라곤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표현되고 확보되는지 알고 싶다.
- 협동조합에서는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사업체에 있어서는 빠른 경영판단이 필요하다. 몬드라곤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 소유자로서의 출자자, 생산자로서의 노동자인 조합원이 조합원의 이익만을 창출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하였는가? 아이쿱 역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사회 환원을 추구하고 있다. 생협금고, 자연드림파크 조성 등을 하고 있다.
- 아이쿱에서는 최근 대전지역에 교육센터를 오픈하였다. 1층에는 생협매장, 2층에는 의료생협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 원래 활동하고 있었던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으로 시너지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시너지효과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소규모로 활동하는 그룹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영관(충청남도 사회적경제 T/F 팀장)

- 충청도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핵심적인 조직은 협동조합이다. 관은 어떻게 협동조합과 연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를 알고 싶다.
- 또 하나는, 오늘 발제를 통해 신협 등의 금융분야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충청도에서는 신협 등의 금융분야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있다.

• 박대호(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 앞서 말씀 중 슈퍼마켓의 점주에 의한 협동조합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에도 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볼로냐는 왜 성공적이고, 또 어떻게 협동조합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지가 관심이 끈다. 또한 협동조합의 정신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김민숙(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팀장)**

- 몬드라곤은 고도성장기의 나타났던 협동조합의 사례인데, 저성장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할 수 있을까?
- 또한 이미 대기업의 지배가 확고한 사회에서 대안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김종수(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 협동의 원리를 배운 적이 없는 일반인들이 쉽게 협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송두범(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 스페인에서는 협동조합이 친근한 문화인가? 일반화되어 있는가?

-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우리사회에서 제 2의 몬드라곤, 볼로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한국에는 아이쿱과 같이 전국적인 생산자조직을 기초로 한 소비자협동조합이 많이 성장했다. 그러나 몬드라곤은 지역사회를 기초로 한 협동조합으로 인구의 80%이상, 볼로냐는 45%가 참가하는 협동조합이다. 아이쿱과는 성격이 다르다. 대단위의 협동조합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닌,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 그리고 협동조합 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 생협은 소비자협동조합으로 변했고, 생협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얼마나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의문이다. 지역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자 지역사회의 다양한 규모의 협력이 중요하다.
-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잘못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지도 모른다. 생태계가 만들어진 후 지원이 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많이 우려된다.
- 몬드라곤의 고용규모와 현대자동차의 고용규모를 단순한 생산매출액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동차산업은 장치산업에 속하므로 고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 **신동호(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바스크의 독특한 문화적인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본다. 도시중심의 역사, 길드의 역사 등이 몬드라곤의 탄생에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본다.
- 우리 지역 역시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지역에는 온갖 모임이 있다.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모임과 네트워크를 사회적경제와 연계를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러한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

• **김성오(발제자)**

- 몬드라곤의 협동조합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의 기억은 세대를 걸쳐 진행되어 왔다. 깊은 협동조합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 고도성장기에 적합한 모델이 아닌, 저성장기에 더욱 적합하다. 협동조합은 배당보다 고용을 선택할 수 있는 기업형태이기 때문이다.
- 분명 바스크 사회가 가지는 문화의 영향은 크다고 본다.
-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한다면, 기존의 주식회사가 많이 전환할 것으로 본다. 분명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지만, 성공의 예도 많을 것이다.
- 몬드라곤의 사례를 통하여 볼 때, 작은 군, 먼 단위의 지역에서 힘을 응집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협동조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신탁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금융조직은 지역의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협동조합에 대한 통계를 내어,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 메뉴얼을 만들고, 그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몬드라곤은 조합원이 아닌 해외노동자들을 어떻게 배당권과 소유경영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몬드라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조합원화, 즉 정규직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경영목표로 삼고 진행중에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젊은 노동자들은 어떤 조직에 얹매이려 하지 않아 지지부진하다.
- 철저하게 위임경영을 한다. 위임된 경영권에 대해 가타부타하지 않으며, 평균 총회 참석률 30%정도 이나 이사회를 뽑을 때는 높은 참석율을 보인다.
- 현재 협동조합의 고용규모 1%이지만, 고용규모가 커져 5%, 10%가 되면 우리나라의 문화 역시 많이 바뀔 것이다.
- 몬드라곤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몬드라곤이 글로벌화하면서 협동조합이 아닌 하나의 다국적기업으로 변하였다고 보는 시각들이 존재한다.

• **장종익(발제자)**

- 개인적으로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그마한 개선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변화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 앞서 몬드라곤의 글로벌화를 비판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하나의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몬드라곤의 글로벌화는 몬드라곤의 생존전략이라고 보며,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협동조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협동조합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어릴때부터 사회적경제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사회를 추구하는 지금의 교육형태에서는 협동조합을 이루어내기가 어렵다.

- 몬드라곤과 볼로냐와 같이 대규모 협동조합의 도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분야에 따라서는 협동조합을 하면 잘될 분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치과, 자동차 서비스분야 등은 그 예이다. 또한 친환경분야 역시 성공한 예이다. 잘 될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 정책의 하나일 것이다.